

2021 시민참여 창의혁신 공론화

작은이 친구 희망플로렌

04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연구

유아 · 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21 시민참여 창의혁신 공론화

작은이 친구 희망플로렌

04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연구

유아 · 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연구

유아·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연구책임

조 현 제

연구진

이 진 희

본 보고서는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21년 작은연구 희망플랜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로
부천시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연구 희망플랜

Contents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방법 및 구성	13
II.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내용 연구	1.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내 성교육의 필요성	19
	2.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적용	25
	3. 유아, 초등 대상별 포괄적 성교육 활용방안	38
III. 구체적 사례와 정책 제언	1. 유아 포괄적 성교육 사례	65
	2. 초등 포괄적 성교육 사례	68
	3. 정책 제언	76
참고문헌		83

표목차

[표 1-1] FGI 조사 참여자 특성(1) 어린이집 교사	14
[표 1-2] FGI 조사 참여자 특성(2) 어린이집 부모	14
[표 1-3] FGI 조사 참여자 특성(3) 초등교사	14
[표 2-1] 학교 성교육 만족도 불만인 이유에 관한 성인들의 주요답변	19
[표 2-2] 성교육에서 더 배우고 싶은 내용	20
[표 2-3]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1. 관계	28
[표 2-4]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29
[표 2-5]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3. 젠더 이해	31
[표 2-6]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4. 폭력과 안전	32
[표 2-7]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33
[표 2-8]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34
[표 2-9]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36
[표 2-10]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8. 성과 재생산 건강	37
[표 2-11] 양육자, 교사 대상 그림책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	45
[표 2-12] 연령에 따른 성역할 발달 특징	46
[표 2-13]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	47
[표 2-14]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가진 성역할 고정관념 평가 기준	48
[표 2-15] 성평등 그림책 목록	51
[표 2-16] 성평등한 환경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55
[표 2-17]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신체발달, 관계와 관계기술	57
[표 2-18]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성행동과 성건강, 폭력과 안전	58
[표 2-19]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젠더 이해와 권리	60
[표 2-20]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성과 미디어	60
[표 3-1] 초등 5학년 성교육 집중학년 성교육 프로그램	68
[표 3-2] 마을성평등아카데미(초등 5학년) ‘반갑다 사춘기야’ 프로그램	69
[표 3-3] 부천산어린이학교 초등 5, 6학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	75
[표 3-4] (사)부천여성의전화와 산어린이학교 성평등교육 협력 사례	78

그림목차

[그림 2-1] 포괄적 성교육의 8가지 핵심개념	26
[그림 2-2] 포괄적 성교육의 23가지 소주제	26
[그림 3-1] 울산시교육청 성교육 집중학년 세부 추진과제	77

2021 시민참여 창의혁신 공론화

작은연구 희망플랜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 안연구

유아·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I .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수년간 여성혐오 문화가 퍼지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여성 대상 젠더기반 폭력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미투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퍼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성평등 문화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성교육표준안은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이나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의 성교육 안은 부재한 현실이다.

□ 연구배경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중 51.5%가 연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애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 중 21.4%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2 여학생의 경우 3명 중 1명꼴인 30.5%에 달했다. 여성 청소년 중 15.7%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고 응답했고,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왔다’와 ‘새로운 연애 관계를 방해했다’라는 응답도 각각 3.3%였다. 연인 사이에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 청소년은 10.3%로 파악됐다. 대부분 언어적 성희롱 피해(7.5%)를 겪었지만 △성추행(2.9%) △폭행(1.2%) △신체 촬영(1.1%) △강제·강요에 의한 성관계나 성관계 촬영(0.7%) 등의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지난 2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유형 현황에서 성적 촬영물 피해자 43%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경험은 날로 폭력과 피해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학교 성교육이 미비한 가운데 ‘학교 성교육은 원하는 성적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47.3%가 응답하였다.

교육부는 N번방 사건 이후 교육 대책 마련을 묻는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¹⁾의 질의에 대해 ‘성교육의 기본방침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 적용을

1)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문화센터를 비롯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성 소수자 단체, 교원단체 등이 2015년 발표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 폐기 및 제대로 된 포괄적 성교육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조직된 연대체이다.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과 성 의식, 성 태도 확립에 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젠더기반 폭력과 피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문제를 성인지 관점 결여와 성차별을 조장시키는 내용으로 국제 수준에서조차 비난받은 학교 성교육표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학교 내 성차별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스쿨 미투'가 지난 5년 여간 전국적으로 100여 개 학교에 이르는 등 학교 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2019년 발행된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살림터, 2019)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중요시되는 학교문화 속에서 일상적인 욕설 사용과 미디어 문화, 비공식적인 학생문화로서 남학생 중심의 위계질서가 확연히 드러나며 그 가운데 여학생의 화장과 '똥똥한' 몸에 대한 혐오표현, '섹드립'을 통한 여학생 모욕주기 등이 만연하고 공개적 모욕과 멸시를 표출하며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스쿨 미투와 교실내 혐오문화는 교육을 둘러싼 성차별에의 민감성을 높이고 성 인지적인 사고와 태도를 습득한 체계적인 성인지적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청원이 총 2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 또한 성평등한 관점의 인권교육, 성교육에 대한 요구와 연결된다.

발달 단계와 교육 계획에 맞춘 체계적인 성교육 로드맵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 시스템을 통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달되는 성교육은 모두가 누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성적 권리이다. 이를 위해 어떤 관점과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구성원, 당사자를 비롯한 성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여야 한다. 2015년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내 성교육 현장을 비롯해 국제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과감히 폐기하고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개념 8개와 발달 단계에 따른 국제기구의 지침에 맞춰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 연구 목적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왕성해지기 전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포괄적인 성교육은 잘 훈련되고 학생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질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²⁾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복지권, 재생산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성평등한 관점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적 권리를 알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2) 2009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유네스코)

이고도 구체적인 성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학교 성교육이 여전히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생물학적 부분에만 치우쳐 실제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놓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젠더 기반 폭력 피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또래, 연인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처지가 달랐을 때 어떻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절실하다.

2018년 개정판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이하 포괄적성교육 가이드)³⁾는 아동·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하는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자신과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권,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가이드를 유아, 초등학생이 일상에서 관계 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의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내용을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부천교육지원청에 정책 제안하여 일선 학교에 성평등한 성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활용 가이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문헌 연구

2018년에 개정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는 '인터넷인 다른 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성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내용을 도출해내기 위해 기존 번역된 2018년 개정판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연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인 주제로 보완, 정리하였다.

□ FGI 조사

문헌 조사와 함께 유아교육 현장과 초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성평등한 성교육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FGI 조사를 병행했다. FGI 조사를 통해 특히 어린이

3)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유네스코와 유니세프, WHO에서 성에 관한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하여 2009년에 발표했다. 2018년 개정판은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한국어로 번역했다.

집 교사와 부모,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적 성교육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며 일선 현장과 가정에서 느끼는 학교 성교육의 실태와 어려움, 고민 등을 조사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유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7명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포괄적성교육 소모임에 참여하는 부모 4명과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했다. 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초등대안학교 교사 4명과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1-1] FGI조사 참여자 특성(1) 어린이집 교사

구분	기관 유형	나이	담당 나이	경력	결혼 유무	자녀
교사 A	협동어린이집	40대 중반	만 3세	10년	비혼	
교사 B	협동어린이집	40대 중반	만 5세	6년	기혼	여아
교사 C	협동어린이집	30대 후반	만 3, 4세	6년	비혼	
교사 D	협동어린이집	30대 후반	만 4세	4년	비혼	
교사 E	협동어린이집	20대 후반	만 5세	7년	비혼	
교사 F	협동어린이집	50대 초반	만 2세	13년	기혼	남아
교사 G	협동어린이집	40대 초반	만 5세	4년	비혼	

[표 1-2] FGI 조사 참여자 특성(2) 어린이집 부모

구분	연령	자녀
부모 A	30대 초반	만 5세 남아
부모 B	30대 중반	만 5세 여아
부모 C	30대 중반	만 5세 여아
부모 D	40대 중반	만 5세 여아

[표 1-3] FGI 조사 참여자 특성(3) 초등교사

구분	연령	담당연령	경력	결혼유무	자녀
교사 A	30대 초반	5, 6학년	6	비혼	
교사 B	40대 초반	5, 6학년	13	기혼	7, 9세 남아
교사 C	30대 중반	중등	10	비혼	
교사 D	40대 후반	중등	10	기혼	12, 16세 여아

□ 연구의 구성

유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안은 책임연구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지난 5년간 유아, 초등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와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책 성평등 이야기’ 강의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경험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초등 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안은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의 연구와 산어린이학교 사례, 문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성평등한 관점의 성교육(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해)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1	- 관계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2	-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3	- 젠더 이해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4	- 폭력과 안전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5	-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6	- 인간의 신체와 발달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7	-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8	- 성과 재생산 건강

UNESCO
8개 핵심
개념과 23개
소주제

유아대상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활용방안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성차별적인 성역할 및 성별고정관념 점검하기
성적 소통의 중요성
성적자기결정권과 성관계, 성적 동의에 대한 이해
섹스, 섹슈얼리티의 이해
아이의 성, 어른의 성
유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 방안

섹슈얼리티
관점의
성교육방향과
성에 대한
인식

초등대상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활용방안

5~6학년군 포괄적 성교육계획안	- 신체발달
	- 관계와 관계기술
	- 성행동과 성건강
	- 폭력과 안전
	- 젠더 이해와 관리
	- 성과 미디어

초등젠더교육
연구회
아웃박스
(제안)중심으
로

2021 시민참여 창의혁신 공론화

작은연구 희망플랜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 안 연구

유아·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II.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내용 연구

1.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내 성교육의 필요성
2.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적용
3. 유아, 초등 대상별
포괄적 성교육 활용방안

II.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내용 연구

1.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내 성교육의 필요성

현재 공교육 안에서의 성교육은 초등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 교과(체육, 실과 등)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5~6학년 17차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성교육 시간은 4~5차시 정도이다.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가 지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초등(4-6학년), 중고등, 성인 대상 총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초등은 8.6%, 중고등은 41.6%, 성인은 70.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학교 성교육 만족도 불만인 이유에 관한 성인들의 주요 답변

분류		답변 내용
내용적 측면	생물학적 지식에 한정된 피상적 내용	- 주로 생물학적 이야기가 많았음 -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내용만 가르침 - 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함 - 상식 수준의 이야기만 늘어놓음 -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내용만을 가르침 - 이론이 대부분이었고 실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 예방 중심	- 성폭력 등에 대하여 여성의 책임 위주로 교육함
	같은 내용 반복	- 매년 배우는 내용이 비슷함 - 항상 같은 내용을 배워서 지루함
	가부장적·성차별적 내용	-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한 남성 중심의 성교육이 이루어짐 - 순결을 강조하고 생리를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드러남 - 낙태에 대한 공포심, 죄책감을 조장하는 수업이 이루어짐
정서적 측면	흥미 유발 부족	- 배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 질문과 대답보다는 일방적인 교사 전달식 교육이 이루어져 지루함 - 솔직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음
	부정적 감정 유발	- 성교육 시간이 불쾌함, 두려움을 줌 - 남녀가 같이 성교육을 들으면 그 공간에서 성희롱이 다분하게 일어남 - 성교육이라고 하면 부끄럽고 민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함

[표 2-1]과 같이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으로는 생물학적 지식에 한정된 피상적 내용으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순결을 강조하고 월경을 부끄럽게 여기는 방식 등 성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드러났다. 즉, 성적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성적 호기심과 성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질적, 구체적인 성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섹슈얼리티 교육을 배제한 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성관계와 연애, 임신에 대한 윤리 도덕적 접근방식으로 일방적 전달식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 2-2] 성교육에서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영역		구체적인 내용
신체 발달	신체 발달	- 신체 부위의 정확한 명칭 - 다양한 성의 존재 -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신체발달 및 변화(성조숙증, 성호르몬 이상 등) -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 생식기의 생김새 및 관리법 - 성호르몬
	2차 성징	- 신체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 - 남녀 서로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 이해하기 - 신체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목소리, 피부, 수염, 털, 가슴 발달 등)
	월경	- 키 성장과 월경의 관계 - 다양한 월경용품의 사용법 및 처리법 - 월경에 대한 감정 다루기 - 발기, 몽정, 월경을 둘러싼 시대적 인식과 변화 -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소수자의 월경
	임신과 출산	- 임신부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 - 임신, 출산 후 과정까지의 신체 변화 - 임신 중단에 대한 인식 개선 - 비혼모, 비혼부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 사회적 편견 사례 탐구 - 임신에 대한 남녀의 책임감 - 임신과 교육권
	질병	- 자궁경부암 백신주사를 맞는 이유, 시기와 국가 혜택 - 자궁내막증, 유방암과 같은 여성 질환 - 산부인과, 비뇨기와 병원에서 하는 일

관계		-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 여성/동성 간의 올바른 관계 맺기 - 수동적, 강압적, 포괄적 관계에 대한 판단 - 폭력, 강요, 위계에 따라 형성된 관계의 왜곡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처벌 - 관계의 종류(가족, 이웃, 지인, 친구, 연인)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성행동의 차이와 이유 - 동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이별 윤리 - 타인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 - 관계와 관련하여 도움 청할 수 있는 성인, 기관 소개
성행동과 성 건강	성관계	- 성관계의 의미와 과정 - 성욕의 대처 - 여성과 남성의 오르가즘 - 성관계 시 알아야 할 건강한/왜곡된 체위(음란물 비판 교육) -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파트너와의 상의 - 성행동과 위생/ 성병의 위험성
	피임	- 피임 용품의 구매처 및 방법
	자위	- 자위 방법 - 건강한 자위를 위한 위생 수칙
	성관계 대처	- 성적 고민 상담 대상, 방법 - 부모님과 성에 관해 대화하는 법
	질병	- 자궁경부암 백신주사를 맞는 이유, 맞는 시기와 국가 혜택 - 자궁내막증, 유방암과 같은 여성 질환 - 산부인과/비뇨기와 병원에서 하는 일
폭력 과 안전	성의식	- 올바른 성 지식 얻는 방법 - 성적 대화를 할 경우 주의할 점 - 성행위나 성욕과 관련된 올바른 생활 규범
	성범죄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그루밍 성폭력 - 성폭력 관련 법안의 변화 및 국내 처벌 수위 - 젠더 폭력 피해자 - 스토킹/ 데이트폭력/ 이별 폭력 - 성매매의 역사
	성폭력 대처	- 호신술 - 실질적인 성폭력, 성범죄 대처법 실습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안내 -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젠더 이해와 권리	- 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 언어 - 퀴어 혐오표현 - 페미니즘 교육 - 사회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의한 위계 관계 - 다양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 - 성별 이분법의 한계 - 철학, 종교적 신념과 젠더 의식의 상관관계 - 세대 간, 나라 간 성 인식 비교 - 해외 성평등 정책
성과 미디어	- 디지털 에티켓 - 미디어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 SNS, 게임, 웹툰 속 성문화 - 매체에서 보여주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의 위험성 - 음란물 중독, 포르노를 통해 얻은 왜곡된 성 지식의 위험성 - 원치 않는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처법

이에 성교육에서 더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신체 발달(신체 부위의 더 정확한 명칭, 다양한 성의 존재, 2차 성징에 대한 이해, 월경에 대한 감정 다루기, 소수자의 월경, 임신 출산 전 과정의 신체 변화, 비혼모 비혼부 지원기관, 임신 중단에 대한 인식 개선, 질 감염 종류와 대처,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용법 등)
△관계(자기 자신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폭력과 위계 관계에 대한 판단, 동의 훈련, 평등하게 연애하고 이별하는 법, 타인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 등)

△성행동과 성 건강(성관계, 피임, 자위 등에 대한 이해)

△폭력과 안전(성적 소통에 필요한 것, 그루밍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과 대응 등)

△젠더 이해와 권리(성별 이분법, 성별고정관념의 문제 이해, 남성 중심적 언어와 문화의 맥락 이해 등)

△성과 미디어(디지털 에티켓, 미디어 리터러시, 성차별적 디지털 성문화 대처, 성 착취물의 위험성, 디지털 성폭력 피해시 대처법 등) 6개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간 학교 성교육은 아동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며 순결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일관하며 성적 호기심과 자신의 복지, 건강권을 향상시킬 성적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FGI 결과도 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와 양육자 모두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성교육이 생물학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어 존중과 권리 의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

△어떤 특정 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성이란 자아를 찾아가고,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을 배우는 데에 기초가 되며 이는 생애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참여자(교사) 한 명은 “지금의 어른(학부모, 교사)세대는 80~90년대에 유독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조하던 편향된 성교육을 받고 자랐다. 9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나 역시 학교에서 ‘순결서약식’을 하고 여성의 생리, 성관계는 감춰야 하는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배웠다. 오랜 세월 잘못된 성인식 문화 속에 살아온 어른세대와 새로운 가치관을 배운 아이들이 성에 대해 마음껏 꺼내어 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성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아이도 어른도 성에 대해 궁금한 것, 새롭게 고민되는 것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그럴 때마다 ‘은밀하게’가 아닌 마음껏 꺼내어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며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접하면서 치유되는 것들이 있었다. 내 의사는 무시되었던 성 경험으로 인해 오랜 세월 수치심을 느껴왔고, 스스로 깎아내리며 살았다. 아파하며 고민해왔던 것들이 페미니즘, 포괄적 성교육을 공부하면서 내가 겪은 일은 결코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의 성 문화와 인식을 함께 바꿔야만 나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닿을 수 있었다. 성에 대해 앞으로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비하하고 희롱하고 부끄럽게 다루는 사회가 아닌 진정으로 성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를 위해, 또 다른 나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유아기, 초등기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의 내용은

△성평등 개념과 경계선 존중, 성에 대한 개념

△성 역할 구분 짓지 않기, 경계와 동의 교육, 생식기 관련 정확한 명칭 사용하기 △긍정적인 자아 형성 교육,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내 몸의 소중함 알기

△다양성 교육, 지적인 호기심을 격려하고 함께 알아가기, 여자 남자 신체의 모습 그대

로를 알려주기, 다양한 생물, 직업, 국가, 인종, 세대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감을 알려주기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알려주기(입양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관계가 있음을 그림책을 이용해 함께 보고 자연스럽게 인식해보기)

△존중 교육, 경계와 거절에 대한 나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보기, 자신과 타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기, 상대방에게 의견 물어보기, 동의 구하기, 나도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음을 알기. 표현하기 등의 의견이 많았다. 즉 성평등한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각자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성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수를 위한 지식 전달 측면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여전히 성과 섹스를 동일시해서 피해와 가해를 강조하고 신체 부위들을 뭉뚱그려 표현함으로 은밀한 이야기라는 인상을 심는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성교육에 대한 논의나 공부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은 특정한 교육보다는 양육자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언어, 행동과 시선 등을 통해 일상의 문화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은데 성평등한 문화가 보육현장과 가정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와 부모가 함께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탐색하고 타인의 몸과 차이를 느끼며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이른 시기부터 성교육은 시작된다. 그런데 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긍정적인 자아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양육자들은 과연 인권과 성평등한 태도로 교육할 준비가 되었는가 의문이 든다고 답변했다.

아이들과 동등한 성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소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한 자기표현, 교사로서 아이에게 싫은 것, 불편한 것을 말하며 서로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 즉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존중하는 태도, 나의 가치관으로 먼저 해석하지 않고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교사로서 성교육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지만 양육자(학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이 ‘영유아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거나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회와 부모들의 고정관념. 아이들이 성에 대해 알면 조기성애화가 일어난다는 믿음과 아이들이 성에 대해 접근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평등한 관점의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고정관념 없이 바라보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동의 구하기

△나의 경계를 알리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기

△세상에는 남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나다움,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성별, 국가, 종교, 나이, 성정체성,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다양성 인정

△아이들에게 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는 습관을 없애주는 것

△오래된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깨는 어른의 인식전환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FGI 결과를 기반으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성평등한 관점의 공교육 내 성교육 방안을 구체적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적용

2018 UNESCO 성교육 가이드,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 및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행동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나선형 커리큘럼 접근법을 사용해 유아기, 초등기, 중등기, 고등기(성인과 동일) 등 연령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짜여져 있다. 학생의 학습을 돕는 교육자를 위해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성평등한 관점으로 포괄적, 인권 접근법에 기초하며 큰 틀에서 △관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 등 8개 핵심 개념과 23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 나라별 사회별로 문화적 관련성과 맥락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자율적인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고려사항은 전세계적 흐름으로 여자청소년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와 차별, 디지털 성문화의 폭력성을 성평등하게 다루기 위해

△재생산, 위험, 질병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고 △임신 예방을 위해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고

△학교는 포괄적 성교육의 제공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지역사회 기반 교육 또한 포괄적 성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이다.

포괄적 성교육(CSE)은 젠더, 불평등한 권력, 사회경제적 요소, 인종, HIV, 장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같은 광범위한 관계 및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섹슈얼리티 기반 성평등 교육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1. 관계(Relationships)
2. 가치(Values), 권리(Rights), 문화(Culture), 섹슈얼리티(Sexuality)
3. 젠더(Gender) 이해
4. 폭력과 안전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6. 인간의 신체(body)와 발달(Development)
7.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성적 행동(Sexual Behaviour)
8. 성과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그림 2-1] 포괄적 성교육의 8가지 핵심개념

핵심 개념 1 : 관계 주제: 1.1 가족 1.2 친구, 사랑, 연인관계 1.3 관용, 포용, 존중 1.4 결혼과 육아	핵심 개념 2 :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주제: 2.1 가치와 섹슈얼리티 2.2 인권과 섹슈얼리티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핵심 개념 3 : 젠더 이해 주제: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3.2 성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3.3 젠더 기반 폭력
핵심 개념 4 : 폭력과 안전 주제: 4.1 폭력 4.2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4.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핵심 개념 5 :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주제: 5.1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5.2 의사결정 5.3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5.4 미디어 정보해독력과 섹슈얼리티 5.5 도움과 지원 찾기	핵심 개념 6 : 인간의 신체와 발달 주제: 6.1 성, 생식기, 생리 6.2 임신 6.3 사춘기 6.4 신체 이미지
핵심 개념 7 :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주제: 7.1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주기별 성 생활 7.2 성적 행동 및 반응	핵심 개념 8 : 성 및 재생산 건강 주제: 8.1 임신, 임신예방 8.2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8.3 HIV를 포함한 성매개감염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림 2-2] 포괄적 성교육의 23가지 소주제

인권과 성평등을 기반으로 UNESCO에서 만든 국제성교육가이드 포괄적 성교육은 생식과 재생산에 대한 것만을 주로 다루던 한국의 전통적 성교육과는 달리 관계, 젠더, 건강, 신체, 안전, 폭력, 재생산 등 다각도로 다루며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시한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식과 재생산에 대해 주로 배우는 청소년기를 제외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성과 관련한 고민은 ‘은밀한 곳에서’, ‘대충’, ‘각자 알아서’ 배운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성평등 이슈가 많이 다뤄지고 개방적인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애 특정 시기에 특정 주제만을 다루는 단기적, 단편적인 성교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공적인 영역에서 성에 대해 질문하고 배울 기회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연령별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다. 유아기(5-8세), 초등기(9-12세), 중등기(12-15세), 고등기(15-18세 이상)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 중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유아기, 초등기 내용을 분석한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1. 관계

[표 2-3]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1. 관계

핵심 개념	소 주제	나이	핵심 내용
1. 관계	가족	유아기 (5-8세)	-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 가족 구성원들 각각 다른 요구와 역할이 있다. - 젠더 불평등은 종종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나타난다. - 가족 구성원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교육하는데 중요하다.
		초등기 (9-12세)	- 부모/보호자,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아동의 가치 형성을 도우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인도하고 지원한다. -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 건강과 질병은 가족의 구조, 역량, 책임의 측면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구, 사랑, 연인 관계	유아기 (5-8세)	- 우정의 종류는 다양하다. - 우정은 신뢰, 나눔, 존중, 공감, 유대에 기초를 둔다. -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예, 친구간의 사랑, 부모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가 있으며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도 다양하다. -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
		초등기 (9-12세)	- 우정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돕는다. -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우정과 사랑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 불평등한 관계는 사람들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용, 포용, 존중	유아기 (5-8세)	- 모든 사람은 특별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기 (9-12세)	- 낙인과 차별은 해롭다. - 사회적, 경제적 또는 건강상태, 민족성, 인종, 출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기타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무례하며 상대를 상처입히는 것이다.
	결혼과 육아	유아기 (5-8세)	- 다른 가족 구조와 결혼의 개념이 있다.
		초등기 (9-12세)	-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혼, 조기강제결혼은 유해하며 불법이다. - 다양한 연애, 결혼, 양육형태가 있으며 이는 사회, 종교, 문화, 법률에 의해 형성된다. - 문화와 성역할은 육아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과제 첫 번째는 관계를 다룬다. 기존 성교육과의 명백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 성에 대한 이해가 관계와 소통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며 타인을 존중하기, 그러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동의와 경계 존중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친구, 사랑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경계와 동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 안에서의 권력, 문화, 폭력을 인식할 수 있는 힘과 관점,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로서 힘을 주는(empowering)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자와 청소년간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을 연습,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통 가족의 영역은 무성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데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친구, 연애, 사랑관계에서는 생애 초기 맺는 관계에서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우정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룬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교육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우정보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지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실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별하는 방법, 연인간의 의사소통, 성관계 스킨십에서의 동의 등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다뤄야 한다. 더 나아가 연인간의 권력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젠더적인 측면에 대한 지점을 다뤄줘야 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성별로 인한 연인 사이에서의 권력관계가 성인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될수록 연인관계에서의 ‘젠더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양상은 어떠한지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고 최근 디지털 매체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어떻게 이러한 관계에서 나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표 2-4]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가치와 섹슈얼리티	유아기 (5-8세)	- 가치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가 중요 사안에 대해 갖는 강한 신념이다.
		초등기	- 가족과 지역공동체로부터 전수된 가치와 태도는

섹슈얼 리티		(9-12세)	성(sex)과 섹슈얼리티를 배우는 원천이며 우리의 개인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인권과 섹슈얼 리티	유아기 (5-8세)	- 인권은 모두에게 있다.
		초등기 (9-12세)	- 자신의 권리와 인권은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사회와 섹슈얼 리티	유아기 (5-8세)	- 자신의 감정과 몸에 대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초등기 (9-12세)	- 문화, 종교 및 사회는 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는 핵심개념 1 관계에 이어 평등, 존중, 수용, 관용과 같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모두에게 인권이 있으며 이러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배우는 장이다.

유아기에는 특히 자신의 감정과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에게, 어른에게 자신의 감정과 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사회로부터 배운 우리의 감정과 몸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인권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다. 더불어 일상의 영역에서 통념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가치가 개인의 인권에 반할 경우 인권과 문화라는 큰 사회적 틀에서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초등기에는 사춘기와 겹치지면서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성인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이고도 억압적인 태도와 신념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특히 가족 구성원,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태도가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학습한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회의 규범을 보고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인권에 대해 몸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를 비롯해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처우에 관한 유엔협약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말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3. 젠더 이해

[표 2-5]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3. 젠더 이해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3. 젠더 이해	사회적 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 규범	유아기 (5-8세)	-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 개인, 지역사회는 성과 젠더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다.
		초등기 (9-12세)	- 사회문화적 규범과 종교적 신념은 젠더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젠더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은 고유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젠더 평등, 고정 관념과 편견	유아기 (5-8세)	- 누구나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가치가 있다.
		초등기 (9-12세)	- 가정, 친구, 관계,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과 권력의 차이 -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은 편견과 불평등을 낳는다.
	젠더 기반 폭력	유아기 (5-8세)	- 젠더기반폭력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기 (9-12세)	-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은 잘못되었으며 인권을 침해한다. - 젠더 고정관념은 폭력과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3은 젠더 이해이다. 사회적 성으로, 혹은 성별로 번역될 수 있으나 유엔의 정의로는 ‘젠더는 사회가 성역할에서부터 신체적 외형에 이르기까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사회적 태도와 기회, 관계 등에 관한 것’을 일컫는다.

유아기 때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로는 편견 없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젠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긍정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기에는 이를 좀더 심화시켜 성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규범을 돌아보고 성별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성차로 인한 차별이 가정, 친구, 사회 내 권력 차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성차, 성별고정관념이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초등기 청

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젠더기반 폭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토론해보고 바뀌어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약속과 실천 다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 배우고 익히는 인권 교육 속에 성적 권리가 무엇이고,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곧 나의 인권 존중이라는 점을 배우면서 가족, 또래관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친밀감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4. 폭력과 안전

[표 2-6]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4. 폭력과 안전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4. 폭력과 안전	폭력	유아기 (5-8세)	- 괴롭힘, 폭력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잘못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 또는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은 잘못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기 (9-12세)	- 성적 학대, 성적 괴롭힘(성희롱), 괴롭힘(사이버 포함)은 해로우며 이를 경험 할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친밀한 파트너 사이에서의 폭력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목격 할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유아기 (5-8세)	- 자신의 몸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질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
		초등기 (9-12세)	-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게 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안전한 사용	유아기 (5-8세)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동을 포함한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초등기 (9-12세)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와 매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4 폭력과 안전에서는 유아기 때부터 괴롭힘과 폭력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특히 허용되기 쉬운 가족 친구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 신체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성평등한 감수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즉,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동의’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자신의 몸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질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아동 청소년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젠더 규범하에 성별에 따라, 수많은 연애, 결혼 각본에 따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친밀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몸을 만지는 것이 허용되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점점 멀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성별 권력의 차이에 의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아기 초중등기에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터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4장에는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건강권 복지권을 해칠 수 있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한 해석 능력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촬영, 유포, 시청에 대해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무료 채팅앱 등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안전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표 2-7]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유아기 (5-8세)	- 또래집단의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초등기 (9-12세)	-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압력에 저항하고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의사 결정	유아기 (5-8세)	-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
		초등기 (9-12세)	- 의사결정 기술은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 친구,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또래집단, 미디어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하다.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유아기 (5-8세)	- 부모/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아동, 친구와 타인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하다.	
	초등기 (9-12세)	- 성 역할은 사람들의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효과적인 대화는 다양한 방식과 화법을 사용하며 바람, 욕구, 개인적인 경계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정보 해독력 과 섹슈얼 리티	유아기 (5-8세)	- 정확 또는 부정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있다.	
	초등기 (9-12세)	- 미디어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가치, 태도, 규범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과 지원 찾기	유아기 (5-8세)	- 친구, 가족, 선생님, 종교지도자, 지역사회 구성원은 서로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한다.	
	초등기 (9-12세)	- 학교와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자원이 있다.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편에서는 4 폭력과 안전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유초등기 때 또래집단(의 젠더 규범 등)을 통해 섹슈얼리티, 몸에 대한 결정권 등 아동청소년의 성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성별고정관념, 성역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성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미디어의 영향력과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돌보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장이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표 2-8]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성, 생식기, 월경	유아기 (5-8세)	- 자신의 신체 이름과 기능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며, 성 및 임신 기관을 포함하여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초등기 (9-12세)	- 모든 사람의 몸에는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 여성의 몸은 월경 주기 중에 난자를 배출하고 남자의 몸은 정자를 만들고 사정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다.	
	임신	유아기 (5-8세)	-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자궁에서 결합하여 착상할 때 시작한다. - 임신은 일반적으로 40주 동안 지속되며 임신 기간 중 여성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초등기 (9-12세)	- 임신을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자궁에 정상적으로 착상해야 한다. - 월경 주기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 일반적인 임신 징후가 있는데 월경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면 바로 임신 테스트를 해야 한다.
	사춘기	유아기 (5-8세)	- 사춘기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신체와 감정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초등기 (9-12세)		- 사춘기는 한 사람의 재생산 능력의 변화 신호이다. - 사춘기 동안 건강하고 청결한 성 및 재생산 기관 유지를 위해 위생이 중요하다. - 월경은 신체발달의 일부로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며 비밀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사춘기 동안 청소년들은 다양한 신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예 발기 및 몽정)	
신체 이미지	유아기 (5-8세)	- 모든 신체는 특별하고 독특하며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	
	초등기 (9-12세)	- 사람의 겉모습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외모는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6은 인간의 신체와 발달을 다룬다. 유아기 때부터 자신의 신체의 고유성을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다양한 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각 신체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담는다. 특히 생식기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 배우고 월경과 임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성평등한 관점으로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즉

사춘기는 성장과 성숙에 따라 신체와 감정이 변하는 시기라는 점, 그 변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증상들을 사춘기 전에 배우고 익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몸의 변화, 다양한 사춘기 성장 발육의 사례들을 접하고 타인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춘기 변화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나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지식으로 알려진 내용이 많아서 성평등 관점으로 몸, 마음의 변화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월경의 경험을 수치스럽거나 비밀스러운 것으로 다루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으로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안에서 성적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초등 시기 사춘기 호르몬 변화로 겪는 털, 분비물, 발기, 몽정 등 몸의 경험에 대해 교실 안에서 성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표 2-9]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섹슈얼리티, 생애 주기별 성생활	유아기 (5-8세)	- 인간이 자신의 몸을 즐기고 일상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초등기 (9-12세)	- 인간은 일평생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 섹슈얼리티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행동 및 반응	유아기 (5-8세)	- 사람들은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초등기 (9-12세)	- 사람들은 성적 자극(신체적 또는 정신적)에 의해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7은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을 다룬다. 성적 존재로서의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서 생애 주기별 성 발달, 성 생활에 대해서 특히, 유아 초등기의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즉, 유아기의 성으로서 신체에 대한 호기심, 스킨십, 자위

등 섹슈얼리티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 생애 기간 다양한 성 경험을 섹슈얼리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에서 성을 유교적이고 은밀한 것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으면서 유아기, 초등기 아동청소년들이 어른들과 우리 사회의 성 통념, 섹슈얼리티 통념을 익히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 즉 자위를 터부시하거나 쾌락으로서의 성, 여성의 성적 욕망 등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이중 성규범이 성차별로 이어지면서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한편 성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문제들을 개개인의 성적 존재로서의 다양한 몸의 경험을 소통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8. 성과 재생산 건강

[표 2-10]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8. 성과 재생산 건강

핵심 개념	소주제	연령	핵심 내용
8. 성과 재생산 건강	임신, 임신 예방	유아기 (5-8세)	- 임신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며 계획할 수 있다.
		초등기 (9-12세)	- 주요한 임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임은 임신 예방과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성 역할 및 또래집단의 규범은 피임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유아기 (5-8세)	- HIV 감염자도 동등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다. - HIV 감염자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
		초등기 (9-12세)	- HIV 감염자는 안전하고 지지 받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HIV 상태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HIV 감염자는 부작용 증상을 포함한 치료 및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HIV 및 에이즈는 가족 구조, 가족의 역할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HIV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유아기 (5-8세)	-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면역체계가 있음을 안다. -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 - 사람은 누구나 질병이 있든 없는 사랑, 돌봄, 지지를 필요로 한다.
		초등기 (9-12세)	- 성매개 감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섹스를 하면 HIV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HIV는 HIV에 감염된 누군가와 무방비적인 섹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 HIV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HIV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HIV 및 대부분의 성매개 감염병 치료가 끝났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 뿐이다.
--	--	--	--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8 성과 재생산 건강에서는 임신 예방을 비롯해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성매개 감염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건강권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건강권, 복지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HIV를 비롯한 성매개 감염 예방에서 콘돔 사용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HIV와 AIDS의 차이 등을 정확히 알고 무지로 인한 편견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다.

3. 유아, 초등 대상별 포괄적 성교육 활용 방안

유아, 초등 대상별 포괄적 성교육 관련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교육 안에서 교사, 양육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성인들이 어떤 관점과 태도로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지, 성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과 신념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긍정적이고 평등한 관점의 '성'(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갖추어나가면서 일상적인 소통, 돌봄,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초등 현장은 2015년 공교육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차별적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난 6년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요구로 대두된 성평등한 관점의 성교육은 지자체별로 격차가 있으며 개별 학교나 교사, 양육자 등의 노력과 실천 여하에 따라 격차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전면적인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부터 교사 연수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 성평등한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적인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우선 공교육 수준의 포괄적 성교육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 유아 초등기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성교육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과 태도로 '성'을 바라봐야 할지, 성적 권리가 무엇인지, 섹슈얼리티 관점의 성교육 방향과 성에 대한 인식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아이가 임신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까요?’ ‘성교육 방법, 대화요령을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예시답변을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세요.’ ‘어떻게 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초등자녀에게 성교육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학년 딸이랑 아빠랑 샤워는 언제까지가 좋을까요?’ ‘성관계를 알려주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위법 알려줘야 할까요? 여자아이의 성 해소법, 자위법이 알고 싶습니다.’ ‘딸이 처음 생리를 시작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들이 몽정을 하게 되거나, 성인 관련 동영상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5 남아가 아직도 옷을 훌라당 벗고 다니고 엄마 가슴을 좋아합니다. 엄마와 샤워도 좋아합니다. 괜찮을까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성을 배워 오나봐요.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요.’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 양육자 대상 성평등교육 혹은 성교육 강의시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다. 양육자로서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 잘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질문에 깔려있다. 이렇듯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는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 성평등 이슈와 미투운동,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과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대중적으로 성평등과 젠더 감수성에 대해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성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은 성인들이 ‘성’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배운 적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먼저 양육자, 교사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성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관점의)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교사, 양육자가 ‘성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소통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로서 성적인 느낌, 감정, 반응을 갖고 있다’라는 성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과 어른의 성이 ‘성적 존재’라는 점에서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누구나 성적 존재로서 성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고 그 성적 존재로서의 몸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 당연한 사실임에도 성인들이 놓치고 있는 관점이다.

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할 것, 성적 존재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교육의 핵심이다.

이러한 성적 권리에 예외란 없다. 기존의 학교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며 피임교육 안 돼, 성관계는 최대한 나중에 해야지, 동성애 교육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즉, 섹슈얼리티,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폭력, 희생과 피해, 도

덕성과 욕망 등의 초점을 맞춰서 성적 비행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결혼을 통한 성행위만을 허용하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욕망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다양한 성적 경험을 보호주의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도록 하면서 폭력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온 맥락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성별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을 성적 존재로서 그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는 가장 일차적으로 다양한 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성적 존재로서 자기 몸을 긍정할 수 있도록 여과 없이 몸의 구조, 생식기 구조,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 안전한 성관계 등 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으로도 성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한국의 초중고 성교육표준안은 즉각 폐지하고 공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이 절실하다.

□ 성차별적인 성역할 및 성별고정관념 점검하기

또한 교사, 양육자가 스스로 자기 안의 젠더규범(성역할, 성별고정관념 등)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안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젠더가 무엇인지 젠더 개념에서부터 젠더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상적으로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성별에 대한 태도와 신념 안에 숨어 있는 차별적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젠더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형성하는데 양육자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키우는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젠더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야 양육자와 교사는 아이들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알 수 있다. 성차에 대한 지식을 상식과 고정관념에만 의존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된다.

□ 성적 소통의 중요성

양육자로서 성을 가르치기 위한 답을 찾기 이전에 성적 존재로서 나 자신은 그간 어떤 성적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 성적 권리와 관련해 존중받은 경험은 어땠는지, 존중받는 느낌은 어땠고 존중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성적 경험이 바로 개인의 섹슈얼리티 영역이고 그 영역은 우리 사회의 성통념, 성역할 규범, 성별고정관념을 비롯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유독 성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성적 대화와 소통’을 금기시해온 성문화 속에서 성장한 양육자들은 자녀의 성발달과 다양한 성적 경험에 대해 일상적으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면서 사춘기 전후로 소통의 단절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 쉽다. 그래서 더욱 전문

가에게 성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성적 권리는 천부인권으로서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천부인권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촘촘히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성적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자녀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 이게 ‘성적 소통’이고 일상적인 성교육이다.

이러한 ‘성적 소통’을 잘하기 위해, 타인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의 성평등 서약문을 참고하면 좋겠다.

※ 성평등 서약서⁴⁾

1. 세상에는 여자/남자, 기혼자, 아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혼 성소수자 비출산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서로 삶의 방식을 존중해요.
2.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주세요. 정보도, 결정도, 일도 함께 나눠요.
3.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일은 함께 해요.
4. 차별과 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요. 특히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은 주의해주세요.
5.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할 때 특정한 사람들을 희화화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스꽝스러운 여장!)
6. 무대에 나선 이에게 ‘잘 생겼다’ 하지 말아요. 외모 칭찬 말고 다른 창의적인 응원을 찾아봐요.(예: 브라보! 좋아요! 최고예요!)
7. 술 마시면서 서열을 짓거나 패거리 문화를 만들지 말아요. 의도치 않아도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답니다.
8. 오랜만에 만난 마을사람에게 ‘너 살쨍네’ 하지 말아요. ‘예뻐졌다’ ‘시집가도 되겠네’도 칭찬 아니에요.
9. 반가움의 표현이어도, 아무리 귀여워도 툭툭 몸을 만지지 말아요. 불쾌함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10. 처음 본 얼굴과는 존댓말을 사용해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나 000은 약속합니다.

□ 성적자기결정권과 성관계, 성적 동의에 대한 이해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하는데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4) 성미산 아빠 페미모임(2019). ‘성평등한 마을 축제를 만들어요’ 성평등 서약서

있도록 보장받은 권리를 일컫는다. 서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며 정확한 성정보를 바탕으로 관계에 대한 평등성을 탐색하고 어떤 결정에 대한 예측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의 권리를 내세워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한다면 그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편한 행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적 관심을 드러내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행동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아기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성적 욕구를 나누고 마음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과정이다. 성관계를 하기까지에는 개인들의 해부학적 특성이나 건강상태, 흥분 작용의 정도, 상호관계의 질적인 면, 사회문화적인 신념, 기대 등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는 신체적인 접촉 이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과 상대와의 성적 행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성적 동의’는 쉽게 말해 어떤 일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동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를 구할 때는 명확하게 언어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호할 때는 세심하게 상대방의 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거절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더욱 즐겁고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동의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동의를 표현하여야 한다. △동의를 구체적이어야 한다. △동의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확인해야 한다. △동의를 반드시 나의 마음에서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권력의 문제나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 음주나 약물 등에 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다. △동의를 쌍방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성적 동의 연령(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이었다가 여러 논의를 거쳐 2020년 16세로 상향조정되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그것이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기준이지만 ‘일정 연령이 지났다고 해서 성적 동의 역량을 모두 갖췄는가?’ 또는 ‘16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동의 역량이 부족한가?’의 문제에 있어 ‘기준 연령’이 주는 한계는 분명하다. 성적 주체로서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성적 권리에 대한 논의와 성적 동의 맥락에서 점검해야 여러 요소(성별에 따

른 사회적 통념, 경제력, 의사소통능력, 장애/비장애여부, 사회적 자본, 폭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

□ 섹스, 섹슈얼리티의 이해

한국어로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모두 ‘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경우 ‘남자, 여자’ ‘성별’ ‘남자다움 여자다움’ ‘야한 것’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답한 이 모두 각각 다른 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를 구분해보자면 생식기, 염색체, 호르몬으로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성을 이야기할 때의 성은 섹스라는 개념에 해당하나 많은 경우 성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출판시장에 아들 양육서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엄마들에게 남자의 심리와 속성을 알려주겠다고 이런 지식들이 생산 유통되고 있는데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졸업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가 많아지는 남아들의 문제에 대해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 ‘페미니즘이 교육 분야에서 소녀와 여성의 요구에 대한 관심을 높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년의 필요를 희생시킴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페미니즘 원인론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휘청거리는, 표류하는, 위기의 소년들의 문제가 페미니즘 때문이고 그래서 남자 아이와 여자아이에게 다른 교육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남아는 여아와 뇌의 발달 순서가 다르고(여아는 소근육과 사고, 언어가 먼저 발달하고 남아는 대근육과 행동이 먼저 발달한다는 식의) 남아는 여아보다 권력 의지가 앞서고 남아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숙제를 잘하지 않고 준비물로 빠뜨리기 일쑤며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여아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 성차 연구물들을 메타 분석(표본 128만명, 124가지 젠더 차이 대상)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 교수 재닛 시블리 하이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물 중 78%의 연구에서 남녀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약간만 존재한다고 밝혀졌다.⁵⁾ 특히 남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여긴 영역들(감정, 언어능력, 수학능력)에서 젠더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사이의 실제 차이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수학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생애 초기의 언어 능력 일부, 신체상과 사춘기 우울증, 이 유 없는 신체적 공격성, 놀이 양식 등 일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기준으로 페이스북은 세계 17억 1천만 명이 사용한다. 한국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할 경우에는 남성 여성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호주나 영국에서 살며 페이스북에 가입한다면 2014년에는 여성 남성 외에 맞춤 선택지가 무성, 트랜스, 양성,

5)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크리스티아 스피어스 브라운 지음, 창비, 2018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 등 50개의 표현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2016년에는 71개(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남성,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여성, 성중립, 폴리젠더, 남녀추니, 간성 남성, 간성 인간, 간성 여성 등 21개 항목 추가)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처럼 젠더 스펙트럼이 남녀로 한정된 사회와 71개의 젠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회의 차이는 젠더 이분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의 차이만큼이나 한 사회의 젠더 정체성과 다양한 성적 존재에 대한 포용과 관용, 존중의 문화와도 크게 연관이 되는 문제일 것이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은 젠더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에 젠더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⁶⁾

‘젠더는 인지적, 심리적 상징적인 구성물로서 인간이 특정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습득하는 일종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집단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젠더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성차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는 사랑, 결혼, 가족구성, 출산, 양육, 고령화를 포함한 사적인 영역부터 경제, 종교, 정치, 미디어, 학교 등의 모든 공적 영역에 작동하는 강력한 체제이다.’⁷⁾

젠더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고 젠더 이분법의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은 아주 쉽게 편견과 혐오와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아이의 성, 어른의 성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중학생 성적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십대의 성문화를 엿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최초 연애 평균 연령이 12세라는 것, 외모 가꾸기에서 여학생(82.8%)이 남학생(50.6%)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응답한 점,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이 높은 점(여 21.7%, 남 5.4%), 성적인 이야기는 74%가 ‘언제나, 거의 즐거운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응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친구가 동성애자임을 밝힐 경우 약 50% 학생이 ‘고민을 함께 나누거나’ ‘전과 다를 바 없이 지내겠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은 ‘청소년 성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인권 협약’(48.5%)과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협상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거부를 위한 기술’(42.2%), ‘대중 매체 및 아동이 미적 기준과 젠더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42.2%), ‘젠더 역할 및 젠더고정관념에 가족이 끼치는 영향’(40.3%) 순이었다.

성적 존재로서 유아 초등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도 성적 쾌락과 욕망을 갖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기 몸과 마음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표현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중요하다.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6)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양지영 김홍미리 지음, 한권의책, 2017

7) 젠더와 사회, 김현미 외 지음, 동녘, 2014

위해 아이의 성 또한 존중하고 건강권 복지권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은 연구자가 지난 2년간 유아기, 초등기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 양육자 대상으로 시행해온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2-11] 양육자, 교사 대상 그림책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

회기 주제	구체적 내용/ 그림책
관계	가족 친구 사랑 연인관계, 관용 포용 존중 배우기 그림책 <문어 목욕탕> <풍선 다섯 개> <너와 나>
가치, 권리, 문화, 성	가치 인권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그림책 <줄리의 그림자> <할머니의 트랙터> <여름 안에서>
젠더 이해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 규범 그림책 <3초 다이빙> <딸 인권선언> <나의 젠더정체성은 무엇일까> <수박 수영장>
폭력과 안전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정보통신 기술의 안전한 사용 그림책 <동의> <걱정>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의사결정/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그림책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너의 눈 속에>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성, 생식기, 월경, 임신, 사춘기, 신체 이미지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아름다운 탄생>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섹슈얼리티, 생애주기별 성 생활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정지오> <할머니의 여름 휴가> <장수탕 선녀님> <빨강이들>
성 및 재생산 건강	임신, 성매개감염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림책 <빨간 모자야, 어린이 인권을 알려줘>

교사, 양육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그림책을 활용한 성평등 이야기’ 형태로 총 8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전 연수,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성적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그림책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호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연습하고 성적 존재로서 감정을 표현하고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고 듣는 것, 그 자체가 관계(relation) 교육 속에서 성적 권리 존중, 즉 경계 존중 교육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계 존중 교육은 유아기부터 초등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매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 방안

유아 대상의 경우 일상적으로 양육자와 교사(유치원, 어린이집 등)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성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교사, 양육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요구된다. 더불어 유아를 둘러싼 생활 환경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은 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안도 필요할 뿐더러 교사, 양육자 대상 포괄적 성교육 안도 별도로 필요하다.

○ 유아기 성 발달 특징

젠더감수성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영유아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 시기에 습득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분법적 성역할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고착될 수 있고, 이는 다시 다음 세대로 답습되어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2] 연령에 따른 성역할 발달 특징⁸⁾

구분	성역할 발달 특징
성 정체성 획득기 (만 2-4세)	-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람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지각하고 질문함. - 성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성인의 역할에 따른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관찰을 토대로 이를 학습함 - 성, 인종, 장애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의 시작
성 안정성 획득기 (만 4-5세)	- 성 유형화된 놀잇감 선호 및 자신의 성역할에 충실 - 주변의 성인을 관찰하여 놀이로 재현하고 성 고정관념을 배워감
동일 성 선호기 (만 5-7세)	- 놀잇감, 옷,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남 -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규칙 및 규범에 순응 - 성역할 관습 위반을 잘못된 일로 인식하며 위반시 처벌이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역할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함

유아기는 양육자를 비롯한 주위 성인들이 갖고 있는 젠더 규범을 수용하는 시기로서 성인들의 성평등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성 발달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성적 질문이 활발해진다.

신체에 대한 호기심, 스킨십, 자위라는 유아기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긍정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신체의 명칭과 경계 존중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8) 김은희(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유아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에서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능동적인 접근태도를 반편견교육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반성차별의식(anti-sexism), 반상하의식(anti-verticalism), 반정상주의(anti-normalism), 반장애주의(anti-handicappism)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성, 인종, 민족, 장애, 사회, 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교육함으로써 특정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며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로서 ‘모든 아동들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편안한 감정이입을 발달시켜 자신 있고 폭넓은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이가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지해주는 비판적 생각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곧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기는 4-5세경이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4세부터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어진 관념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편견 교육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니게 된 편견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그러한 편견의 내용이 그림책에 어떻게 담겨져 있고 이러한 편견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지 어른들이 먼저 알아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림책을 ‘좋은 그림책’으로 선별하느냐 관점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책 속 성역할 고정관념

어린이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보면 어린이들이 즐겨 있는 책의 다수에서 엄마와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어린이들이 읽는 책중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인 그림책인 경우는 대부분 공주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공주 시리즈 속 주인공이라고 알려진 공주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나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잠들어 있거나 성에 간혀 있거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수동적 인물로 그려지고 주로 외부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왕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실질적인 주인공은 왕자로 그려진다. 이렇듯 어린이책, 특히 그림책 속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같은 차별적 요소들이 통념처럼 배어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표 2-13]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⁹⁾

목차	평가 항목 내용
1-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2-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2-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2-3	신체의 일부를 특정 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3-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3-2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3-3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회화화)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3-4	폭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4-1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4-2	가족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4-3	가족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은가

[표 2-14]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가진 성역할 고정관념 평가 기준¹⁰⁾

주제	내용
여성	1 아름다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기 보다는 기술이나 경쟁에 의해 보상받는가
	2 여성이 수동적인 역할로 나타나지 않는가
	3 여성이 가사 외의 일을 하는가
남성	1 남성이 괴롭히는 역할로 나타나지 않는가
	2 남성이 전형적인 성역할로 나타나지 않는가
	3 남성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성평 등	1 여성 남성 인물이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모습인가
	2 여성 남성이 신체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가
	3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사에 참여하여 역할을 분배하는가
	4 남녀 모두 자기 독립적이고 현명하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 해결하는가
	5 남녀 모두 민감성 또는 폭넓은 감정을 나타내는가
	6 강인함, 진취성, 용기 또는 동정심, 인정 등이 남성 혹은 여성의 본성이 아닌 인간적 특성으로 나타나는가
	7 남녀 모두 자신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는가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분석 항목과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가진 성역할고정관념 평가 기준을 토대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보는 어린이책, 그림책을 점검해보고 성평등한 관점의 그림책, 어린이책이 많이 읽히고 읽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https://lib.seoul.go.kr/search/detail/CATCRZ000000941112>

10) 정대련(2005).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유아그림책 분석-2000년 이후 출판된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6(1)

○ 나다움을 키우는 어린이책

다음은 정부가 추진했던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기준이다. 이 사업은 성평등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착되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교육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기관·기업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2020년 2년간 추진해온 사업이다.

- 주인공이 모험과 성장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
- 주인공이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 주인공이 성고정관념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아형성을 이루는 이야기
- 전형적 핵가족 이외의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성을 만나는 이야기
- 가족 내의 성역할이 고정되지 않고 가족의 도전과 변화가 있는 이야기
-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인물의 특성과 직업이 다양하게 그려지는 이야기
- 차별적인 시선이나 표현에서 벗어나 도전을 꿈꾸는 이야기
- 평등하고 다양한 시각을 들려주는 아이들의 이야기
- 그림이 정형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야기

그런데 작년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에 성교육 책을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도서 중 일부(7종 10권)의 도서에 대하여 ‘동성애를 부추기고’,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며’, ‘조기 성애화 우려가 있다’며 문제 삼고 여성가족부가 ‘문화적 수용성’을 이유로 해당 도서들을 회수 결정하게 된 일이 있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에 대한 표현에 대해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생각하거나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를 보여준다 해서 동성애 미화라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성통념에 근거한 차별적 고정관념 혹은 성에 대한 금욕적, 구시대적 태도의 반증일 것이다.

오히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의 대상이 된 7권의 책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장애유무, 성적지향,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가 그동안 금기시하던 몸의 성장과 변화, 임신과 출산 과정을 정확하게 소개하며, 다양한 가족구성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와 그로 인한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 회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내기도 했다.

특히 논란이 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페르 홀름 크누센, 담푸스, 2017)는 1971년 덴마크에서 출판되던 당시에도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이 책을 회수하자고 주장했던 책이기도 하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막아낸 결과, 72년에 덴마크 문화부 아동도서상을 받고 전세계에 번역 출판되었으며 49년이 지난 지금 '덴마크의 지난 100년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의 물건'에 선정되었다. 이 책의 저자 페르 홀름 크누센

(74)은 “덴마크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지난 49년 동안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 덴마크에서 조기 성애화한 아이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어릴 적부터 이 책을 좋아하고 사랑한 이들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책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본적인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돼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내 책을 외설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거나, 엄격하게 종교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섹스에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 나는 이 책이 현실적이고 교육적이길 원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에서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웃음).”라고 말했다.¹¹⁾

○ 성평등 어린이책

다음은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기준을 토대로 성평등 그림책 기준을 목록화한 것이다.

- 등장인물을 표현할 때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직업을 나타낼 때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모험과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성별에 따라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나 생물학적 특징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준다.
-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인물이 있을 경우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 존대어 사용이나 비하하는 표현이 인물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전통적인 성역할을 적용하지 않고 변화하는 성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 폭력적인 장면은 최소화하고 진지하고 선명한 태도로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제안해야 한다.
-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어떤 폭력도 사소한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그려내지 않는다.
-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차별없이 다루고 작품 속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편견에 대응한다.
-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 가사노동과 양육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거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표 2-15] 성평등 그림책 목록¹²⁾

성평등 기준	성평등 그림책
등장인물을 성별에 따라 다른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봉지 공주〉 〈올리비아는 공주가 싫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과학자 에이다의 대단한 말썽〉
성별 관계없이 모험과 성장의 주체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가시네〉
성별에 따라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나 생물학적 특징을 나누지 않는다.	〈말라깽이 챔피언〉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사라, 버스를 타다〉 〈말랄라: 여자아이도 학교에 갈 권리가 있어요〉
존대어 사용이나 비하 표현이 인물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엄마 인권 선언〉 〈아빠 인권 선언〉
전통적인 성역할을 적용하지 않고 변화하는 성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	〈뜨개질 하는 소년〉 〈공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
폭력적인 장면은 최소화하고 진지하고 선명한 태도로 바람직한 해결을 제안한다.	〈동의: 너와 나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도 권리가 있어!〉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폭력도 사소화하거나 개인화하지 않는다.	〈모르는 척 공주〉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차별 없이 다루고 작품 속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편견에 대응한다.	〈풍선 다섯 개〉 〈따로 따로 행복하게〉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줄리의 그림자〉 〈안녕 나의 핑크 블루〉
가사노동과 양육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거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트랙터〉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위의 성평등 그림책 내용의 기준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2019년, 2020년 나다움 어린이책 목록에서 유아가 읽으면 좋은 그림책을 목록화했다. 이 그림책을 토대로 유아기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해서 읽을 때는 그림책을 그대로 읽어주기 보다는 대화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스스로없이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다.

11) 오마이뉴스, 2020. 8. 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1072

12) 조현제(2021), 양육지 성인지 역량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음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그림책을 다시 읽어준 내용이다.¹³⁾

“아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탄생신화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커가면서 ‘난 어떻게 태어났어?’ 똑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해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도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초등시기 질문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커갈수록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거든요.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몸과 마음이 쑥쑥 커갑니다. 그러면서 궁금함을 풀고 호기심을 갖고 관계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특히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5세 전후로 아이들은 성적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왜 엄마만 애기를 낳아요? 엄마는 왜 가슴이 커요? 아빠는 왜 털이 많아?

아이들이 이러한 성적 질문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아이들의 질문에 어른들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성적 질문을 할 경우 많은 부모, 교사들은 당황하거나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이유를 스스로 질문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이들의 자연스런 성발달에 대해, 성적 궁금증에 대해 어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내 아이에게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혹은 아이답지 않게 질문하는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지 어른들이 먼저 스스로 성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교사 등 주변 어른들과 또래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성별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변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성 발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성’이란 몸을 통해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부모, 교사들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성적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나’라는 질문을 풀어나갈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담푸스)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1971년 덴마크의 작가이자 성 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이 어른 남녀의 벗은 모습, 성관계가 이뤄지는 모습, 아기가 나오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작년 한 야권 의원이 조기성애화 우려가 있다며 도서관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책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금욕적, 도덕적, 보호적 성에 반대하며 아이들에게 성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성적 존재로서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교육을 원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더 인기를 얻게 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초등 자녀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책 내용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아이의 입장에서, 읽어주는 이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음 내용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번역을 좀 더 성평등하게 바꿔서 다시 읽어준 내용입니다. 참조하셔서 각자 아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호기심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풀어주 시면 좋겠습니다.

“#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싶구나. 우리 한 번 같이 그림 보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보자.

누구한테나 엄마랑 아빠가 있다는 건 알지? 물론 모두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건 아니야.

할머니랑 살거나 다른 친척과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지.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랑 아빠가 힘을 합쳐야 해.

여기 엄마랑 아빠가 있어.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을 거야.

옷을 벗은 엄마랑 아빠야. 엄마에겐 가슴도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걸 질이라고 해. 그리고 질 입구 위에 요도가 있고 그 위에 튀어나온 음핵(클리토리스)이 있어.

아빠에게도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음경이 있어. 엄마의 음핵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빠의 음경이야. 그리고 음경 옆에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 우리 몸의 눈 코 입처럼 우리 몸의 일부인 생식기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기억해둬. 멋진 내 몸의 일부니까.

아기를 만들려면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 뽀뽀도 하고, 그리고 엄마 몸과 아빠 몸의 생식기인 질과 음경을 하나로 연결시키기도 해.

이런 모든 것을 성관계라고 해. 성교라고 부르기도 하지. 아무튼 사랑하는 신나고 멋진 일이지. 아기를 만들기 위해선 성교를 하기도 해. 하지만 성교를 한다고 무조건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야.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로 엄마 아빠의 난자 정자를 수정시켜 아기를 낳기도 해.

엄마랑 아빠는 서로 사랑해.

아기도 낳고 싶어 하지.

엄마의 나팔관에는 난소라는 생식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는 매달 난자를 자궁으로 보내. 이 난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야. 난자는 엄마가 엄마의 엄마 몸 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엄마 몸 속에 갖고 있다가 태어나서 쑥쑥 자라 사춘기 무렵 초경을 할 때부터 매달 건강한 난자를 하나씩 자궁으로 보내는 거야.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아빠의 고환에는 정자가 많이 있어.

엄마와 아빠가 성교를 하면 엄마 몸의 난자와 아빠 몸의 정자가 엄마 몸의 자궁에서 만나게 돼. 매번은 아니고 엄마의 자궁 안에 엄마 몸의 난자라는 큰 세포가 있을 때 정자랑 만나면 그때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엄마 아빠가 일어났네.

두 사람은 성교 후에 서로를 안아주고 있어. 뽀뽀도 하네.

엄마 아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 몸 속, 자궁(포궁)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난 모습이 보이네.

엄마랑 아빠는 난자랑 정자가 합쳐졌는지 궁금해.

난자랑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라는 동그란 알이 되거든.

이 작은 알이 아기가 되는 거야.

13) 조현제, 나다움어린이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다시 읽기, 공동육아 139호, 2021년

엄마 배 속에 작은 아기가 있어.
 엄마랑 아기가 긴 줄로 이어져 있는 게 보일 거야.
 이 줄이 바로 탯줄이라는 거야.
 # 아기는 엄마랑 이어진 탯줄로 음식을 먹는데 탯줄이 붙어 있는 곳이 보이지?
 그게 바로 태반이야. 이 작은 아기는 탯줄을 통해 엄마 몸의 태반에서 엄마의 양분을 먹으며 쑥쑥 자라는거야.
 아기가 좀더 자라서 작은 꼬리가 생겼어. 짧은 팔과 다리도 있네.
 # 팔과 다리가 길어졌어. 머리도 커졌지. 꼬리는 이제 거의 안 보이네.
 태반도 커진 거 보이지?
 엄마의 포궁도 아이가 자라는 만큼 커져 가. 놀라운 우리 몸의 변화야.
 그런데 그런 만큼 엄마는 몸이 무거워지겠지.
 # 아기에겐 작지만 눈도 있고 귀도 있어.
 엄마 배 속은 보이지 않지만 아기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
 아기는 탯줄로 음식을 받아먹으며 자라는 거야.
 아기가 커지면 엄마 배도 같이 커져.
 #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어.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수정란이 된 지 아홉 달이 되었어.
 이제 아기는 밖으로 나와도 될 만큼 자랐어.
 물론 어떤 아기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하고 더 늦게 나오기도 해. 아기마다 세상에 나올 준비를 다르게 하거든.
 # 엄마 배가 너무 커져서 옷을 입기 힘들 정도야. 그래서 임부복이라고 커다란 옷을 입어.
 엄마는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
 곧 아기가 태어날거야. 빨리 만나고 싶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게 보이지?
 # 엄마는 아빠랑 같이 병원에 가.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조산원에 가기도 하고 혹은 집에서 아이를 낳기도 해. 너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 이 엄마 아빠는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기로 했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 낳는 걸 도와줄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기 스스로 세상에 나오기 위해 힘을 쓰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산통을 통해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아빠도 엄마와 아기를 도와주며 함께 출산을 하지.
 # 엄마가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
 엄마의 질을 통해 아기 머리가 나오는 게 보이지?
 # 이번엔 팔이 나왔네.
 참 장하다. 엄마도 아기도.
 # 아기가 완전히 나왔어.
 아기에게 달려 있던 탯줄은 아빠가 잘랐어.

아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산통이 오면서 태반도 같이 나와.
 정말로 아기를 낳은 거야!
 # 아기가 태어난 뒤 엄마랑 아기는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좀더 있다가 집으로 가기도 해.
 요즘엔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출산 후 아기와 함께 몸조리를 하기도 해.
 태어난 아기는 엄마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먹기도 하고 분유를 먹기도 해.
 # 아기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괜찮아.”

○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표 2-16] 성평등한 환경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¹⁴⁾

문항			점검내용
환경	1	성별에 따라 색을 구분한 환경 게시물(명찰, 작품 전시 등)이나 교구, 놀잇감은 없나요?	예/아니오
	2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해주는 게시물, 교구, 놀잇감은 없나요?	예/아니오
	3	남녀의 모습(옷차림, 태도 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주는 게시물, 교구, 놀잇감은 없나요?	예/아니오
	4	남아들 또는 여아들만의 참여를 이끄는 흥미영역은 없나요?(놀잇감 종류, 색 등)	예/아니오
	5	성평등한 관점이 담긴 그림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예/아니오
상호 작용	6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요?(경찰아저씨, 간호사 언니 등)	예/아니오
	7	성별에 따른 모습이나 태도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요?(여아에게는 얌전히, 예쁘게, 남아에게는 씩씩하게, 욕감하게 등)	예/아니오
	8	남아와 여아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지도하고 있지 않나요?(여아에게 조용히 하자, 남아에게 똑 그치자 등)	예/아니오
	9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남아와 여아의 동등한 참여를 이끌고 있나요?	예/아니오
	10	교실에서 나타나는 영유아들의 성불평등한 발언이나 갈등을 중재하고 있나요?	예/아니오
가정 과의 연계	11	어머니 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육아 참여를 충분히 격려하고 있나요?	예/아니오
	12	가정연계프로그램이나 가족참여행사,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에서도 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예/아니오

기관 문화	13	영유아교사들은 원내 환경구성 및 교육 보육과정 계획시 성역할 고정관념 편견이 반영된 교재 교구 교육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인가요?	예/아니오
	14	원장은 교사들이 성평등 관련 교육,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편인가요?	예/아니오
	15	원내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교직원, 영유아의 외모 성격평가 등에 대한 대화가 자주 오가는 편입니까? (“오늘 여성스럽게 예쁘게 하고 왔네~” “000은 남자애가 ***해서 걱정이야” 등)	예/아니오

유아 대상 포괄적 성교육시 교사와 양육자들은 위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유아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점검해보고 성평등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일상적인 성적 소통과 그림책을 활용한 경계 존중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다.

□ 초등 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 방안

초등 대상 포괄적 성교육은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가 제안한 안¹⁴⁾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웃박스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체발달, 관계와 관계기술, 성행동과 성 건강, 폭력과 안전, 젠더 이해와 권리, 성과 미디어 등 5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고등학교 등 5개 연령대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5-6학년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신체 발달

신체 발달 영역에서는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체 변화과정을 탐구하고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대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을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신체와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는 월경과 배란의 관련성을 통해 임신의 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신 과정을 이해하려면 배란을 알

아야 하고 배란을 알기 위해서는 배란과 월경의 관련성을 알아야 한다. 또한 초등 고학년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신체 모습을 결정짓는 요인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스스로 탐구해보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표 2-17]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신체발달, 관계와 관계기술

영역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 내용
신체 발달	임신	- 월경과 배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월경주기가 작동되는 원리를 찾아 설명한다. -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임신 후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월경과 배란	- 월경과 배란의 관련성 파악하기 - 월경 주기 원리 탐구하기
	신체 이미지	- 신체 모습을 결정짓는 요인을 탐구한다. -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음을 알고 신체에 대한 자기존중감을 기르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임신 과정	-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알기 - 임신의 징후 및 임신 확인을 위해 가능한 검사 종류를 살펴보기
관계와 관계 기술	사춘기와 관계 갈등	사춘기 정서 및 심리 변화에 대해 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 또래집단과의 갈등 종류에 대해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한다.	관계 갈등	- 사춘기 심리 변화로 인한 보호자와의 갈등 파악하기 - 또래집단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 파악하기 -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탐색하기 - 또래집단 내 갈등 시 가해자 조치 방법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알기
	다양한 관계	- 우정과 사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한다. - 연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우정 사랑과 연애	- 친구관계의 의미 이해하기 -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 - 사랑의 의미 이해하기 -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찾기 - 연애 상대에 대한 예절과 책임을 인식하기
	성적 자기 결정권	연애할 때 성적자기결정권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기른다.	연애와 성적 자기 결정권	- 연애할 때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이유 탐구하기 - 연애 상대에게 의사 표현하기

14) 김송이(2019), 영유아교사 젠더감수성 교육,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15) 학교 성교육 다시 쓰기-아웃박스가 제안하는 새로운 성교육,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2021

○ 관계와 관계 기술

관계와 관계 기술 영역은 인간이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가족, 친구, 연애편계에 필요한 관계기술을 익혀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 고학년은 사춘기 심리 변화로 인한 갈등과 또래 집단 압력에 의한 갈등과 갈등 대처 기술을 익힌다. 또한 친구관계, 연애편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운다.

○ 성행동과 성 건강

성행동과 성 건강 영역은 성행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에 필요한 요소와 기능을 습득하여 성적 존재로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 고학년은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성행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표 2-18]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성행동과 성건강, 폭력과 안전

영역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 내용
성행동과 성건강	사춘기의 성행동	-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해 알고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성관계	·성관계 전 준비하고 고려할 것 ·건강한 성관계 방법 ·성적 의사 표현 연습하기
			올바른 피임방법	·계획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콘돔 사용법 ·피임약 복용법
	성적 자기결정권	-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 타인의 권리 침해라는 것을 인식한다. - 몸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성적자기결정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 권리 침해임을 설명하기 ·생활 속에서 권리 침해 상황 조사하기
폭력과 안전	동의를 의사표현		동의를 의사표현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 탐색하기-언어적 방법, 비언어적 방법, 반언어적 방법 등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답하는 연습하기
	성폭력	- 그루밍 성폭력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가해 예방책과 대응방법을 익힌다.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의 의미 알기 ·그루밍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조사하기 ·그루밍 성폭력의 대응 방법 익히기

		-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을 찾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가해 예방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상황 탐색하기 ·2차 가해의 위험성과 사례 알기 ·방관의 위험성과 타인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 인식하기
			보호와 지원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 또는 집단 찾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 찾기
성매매		- 성행동을 대가로 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위험성을 인식한다.	성행동을 대가로 하는 거래	·성행동을 대가로 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 조사하기 ·성행동을 대가로 하는 거래의 위험성 인식하기

○ 폭력과 안전

폭력과 안전 영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 고학년은 신체에 대한 농담과 장난, 불편한 시선 보내기 등 타인이 원치 않는 모든 성적 관심은 권리 침해라는 것을 이해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도록 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들에게 날로 확산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의미와 유형,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성폭력 가해 예방과 방관의 위험성을 익힌다. 또한 타인의 성폭력 상황을 알아챘을 때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직접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젠더 이해와 권리

젠더 이해와 권리 영역은 ‘성’이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개인의 특성과 기회, 관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학습되는 사회적 성 즉 ‘젠더’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젠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 5-6학년군에서는 나의 성고정관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성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실천 노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권 존중의 의미와 실천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19]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_젠더 이해와 권리

영역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 내용
젠더 이해와 권리	성 고정관념	- 사회가 가진 성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 성고정관념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한다.	성고정관념의 영향	·일상 속 성고정관념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일상 속 성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방법 찾기 ·성고정관념에 대항하기
	젠더 이해	- 젠더의 의미를 알고 생물학적 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한다. - 젠더 구분이 어떻게 차별로 이어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며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젠더	·젠더(사회적 성)와 생물학적 성의 차이 이해하기 ·젠더 구분이 왜 차별로 이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 ·젠더 구분과 차별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인권과 젠더	- 모든 사람은 특별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이해한다. -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인식한다.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의미 이해하기 ·일상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 찾기
			인권 존중	·인권 존중의 필요성 인식하기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인식하기 ·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 성과 미디어

성과 미디어 영역은 미디어가 담고 있는 정보, 메시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성평등 관점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한다. 초등 고학년군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가해 예방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익히도록 한다.

[표 2-20] 5-6학년군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 성과 미디어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 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 미디어 분석을 통해 외모평가와 성적대상화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모평가를 지양하는 태도를 기른다.	미디어 제작	·1인 미디어 제작자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 제작 수칙 정하기 ·제작 수칙에 맞게 콘텐츠 제작하고 자기, 동료 평가하기
	-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작 수칙을 생각해보고 안	외모 평가	·미디어 속 외모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알기 ·외모평가를 지양할 수 있는 학급 규칙 정하기

	- 전하게 미디어를 소비, 생산한다. - 미디어 속 연애 장면 등을 통해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실천한다.	성적 대상화	·성적대상화의 의미 알기 ·미디어 속 성적대상화 찾고 비판하기
		미디어 속 연애	·드라마, 웹툰 속 연애 장면 분석하기 ·미디어 속 연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면으로 새로 제작하기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고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등의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민감성과 태도를 기른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파악하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관하지 않는 민감성과 태도 기르기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처방법 알기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범죄 유형, 수법 파악하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하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에 대응하는 힘 기르기
음란물	- 노골적인 성적 매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치는 문제점을 탐색한다. - 음란물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왜곡된 성 인식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음란물에 대응하는 건강한 성 인식을 기른다.	음란물	·현실 성적 관계와 음란물의 차이를 비교하며 왜곡된 성 인식이 미치는 문제점 탐색하기 ·음란물 촬영과 유포 과정에서의 성 윤리가 침해됨을 설명하기 ·역할극을 통해 음란물 권유에 거절하고 유포에 대응하는 연습하기

2021 시민참여 창의혁신 공론화

작은연구 희망플랜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 안연구

유아·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III. 구체적 사례와 정책 제안

1. 유아 포괄적 성교육 사례
2. 초등 포괄적 성교육 사례
3. 정책 제안

Ⅲ. 구체적 사례와 정책 제언

1. 유아 포괄적 성교육

□ 사례 1. A어린이집 사례_여성주의 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바라보기¹⁶⁾

A어린이집 교사회는 2년차 초임교사부터 10년이 넘은 경력교사,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보조교사까지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여성주의 세미나를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했다.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중 한 명이 추천한 <여성학 이야기-인어공주는 왜 왕자를 죽였을까>라는 책을 교재로 선정하였고 회기별로 정해진 챗터를 읽고, 교재 내용을 토론하며 실천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보았다.

○ 회차별 내용

－ 1회차 어린이집에서 성평등이란

각자 터전에서 가진 고민을 나누며 여성주의 세미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재와 진행 방식을 선정하였다.

－ 2회차 외모 외형 칭찬, 인사 않기

교사들이 여성주의 세미나를 통해 느끼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모임에서 양육자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과 구체적인 일정을 나누었다. 교사회 실천사항으로 아이들의 외형적 요소로 등원 인사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최고! 엄지척! 같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기로 했다.

－ 3회차 스킨십 하기 전 동의 구하기

성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해 교재를 읽고 느낀 소감을 나누었다.

막상 외형적 요소로 말하지 않으려니 문득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혹 나의 표현이 너무 건조한 것은 아닐까 염려되는 마음이 들기도 한 경험들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잘 등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이 많았다. 좀 더 긍정적인 대

16) FGI와 개별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임.

안적인 인사는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였고, 아이가 분홍색 신발을 신고 와서 신발을 보이며 자랑을 한다면 “예쁜 신발 신었네” “공주 신발 신었구나” 같은 표현 대신 “신고 싶던 신발을 신어서 기분이 좋은가보다” “응 그 신발이 신고 싶었구나? 기분이 좋아 보이니 나도 좋네” 등 아이의 욕구와 기분에 충실한 표현으로 등원인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회 실천사항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시키거나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림책을 찾아보고 아이들에게 스킨십 하기 전에 묻기로 했다.

－ 4회차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그림책 정리

여성으로 태어나 싫었던 것을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책을 찾기로 마음먹고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긍정적인 지 않은 그림책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과 ‘책장에서 다 빼내자!’라는 마음이었지만 너무나 많아 선뜻 정리하게 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동적 존재로 공주가 그려지는 기존의 공주동화는 다 정리하였고 명작 동화들도 불편한 시선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양서 구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 스킨십 하기 전에 묻는 과정은 교사들에게 무척 행복한 경험이 되었다. 아이들이 주체적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교사로서 나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행복했던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다.

－ 5회차 성평등 그림책에 흠뻑 빠지다

유아성교육 강좌에서 추천받았던 책들을 구입 후 터전에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하고 건강한 시선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모든 교사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며 그림책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었다.

이전에 정한 실천사항을 실천해 본 소감과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었다. 그림책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소감과 내용을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좋은 그림책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는 의견, 기존의 그림책에서 성 역할을 어떻게 규범화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의견 등을 나누었다. <슬픈 란돌린>, <아가야, 안녕>, <내 몸은 나의 것>,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 <아기는 어디서 왔을까> 등의 그림책을 함께 읽었다. 교사회 실천사항으로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나누기로 했다.

－ 6회차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하자

노동에 대한 장이어서 여성의 노동과 보육교사로서 삶을 나누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불편한 것이 많아진다는 소감도 있었고 그동안 느낀 불편함이 성차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하자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교사회 실천 후기로 소재도 시각도 새로운 이야기를 읽는 기쁨을 느꼈고 좋은 책을 읽을 때 교사의 감동과 그걸 함께 느끼는 아이들을 보는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공부를 하고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어떤 시각으로 성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할지 명확해졌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 7회차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후 각자의 소감을 나누었다.

· 스킨십 하기 전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거절을 받아들일 때 ‘아! 그동안 아이들이 싫을 때도 내가 스킨십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미숙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인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다.

· 세미나를 하며 다른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나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수 있겠다.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조금은 불편함도 있었지만 이런 불편함 속에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기준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옳은 기준이 아니다. 옳은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다양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내 기준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주의 공부과정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수다를 통해 여성의 문제를 더 많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 아이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영유아기 시기를 함께하는 교사는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할까? 기존의 고민을 함께 일하는 교사들과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했다. 특히 배움을 함께 실천하며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점이 많았다. 일상에서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고 공부를 할수록 점점 불편함이 많아졌지만 감수성이 높아져가는 과정이 기쁘기도 했다.

· 특히 아이들에게 스킨십 전에 묻는 실천을 하며 아이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정말

큰 희열이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간에는 교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다. 보육 중에도 이런 저런 질문과 고민들이 생기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일과와 피곤에 묻혀 물음표만 달아 놓은 채 꽤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려면 교사도 성장해야 하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준 소중한 공부였고 나눔의 시간이었다.

· 여성주의는 새롭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세상을 향해 세워졌던 기준과 벽을 허무는 새로운 시작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초등 포괄적 성교육

□ 사례 1. 울산시교육청 사례

다음은 올해 포괄적 성교육 전면 도입을 선포한 울산시교육청이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하면서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200분 총 5회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관계와 존중, 성역할고정관념과 나다움, 사춘기 변화와 긍정적 이해를 주제로 울산시교육청이 위탁한 울산성문화센터에서 체험형 성교육을 받고 성적 침해 및 성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강사단을 관내 초등 5학년 학급으로 파견해 강의, 토론식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성적 권리의 의미와 권리 침해, 가해 행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표 3-1] 초등 5학년 성교육 집중학년 성교육 프로그램¹⁷⁾

구분	차시	학습주제	학습 내용
체험장 성교육 3차시 (120분)	1	관 계 와 존중	생명 탄생의 과정을 탐색하며 나와 너 우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관계와 존중, 소통의 방법을 이해한다.
	2	성 역 할 고정관념 과 나다 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을 알아차리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3	사 춘 기 변 화 와 긍 정 적 이해	사춘기 심리, 신체적 변화를 알고 불안감을 해소하여 긍정적으로 사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또래 친구와 공유하면서 성에 대한 고민,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사람, 자료 등)을 탐색한다.

찾아가 는 성교육 2차시 (80분)	4	성적 침해 및 성 폭 력 예방	학교 안 다양한 성적 침해의 상황을 살펴보고, 혐오 폭력·성폭력·차이·차별·장난 6가지 키워드를 찾고 또래간 갈등과 폭력을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5	디 지 털 성 범 죄 예방	미디어 속의 왜곡된 성문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을 인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과 대처 방법을 탐색한다.

□ 사례 2. 마을성평등아카데미 ‘반갑다, 사춘기야’ 프로그램¹⁸⁾

마을의 5, 6학년 청소년들과 6회에 걸쳐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첫 시간에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사춘기 고민과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나누었는데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월경주기와 사춘기 털과 냉 등에 대해 알아서 후련하다는 반응이었다. 2회기에는 성 지식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왜곡된 성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 안의 성 통념 등을 되짚어보았다. 6회기 동안 사춘기 성적 호기심과 몸 마음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자사전>과 <안녕, 나의 사춘기> 책 두 권을 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소통하는 연습을 통해 성적 존재로서 성장해나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목표로 했다.

[표 3-2] 마을성평등아카데미(초등 5학년 대상) ‘반갑다, 사춘기야’ 프로그램

회기 주제	구체적 내용
우리는 다 달라	- 성하면 떠오르는 것, 떠오르는 감정은? -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 나의 성 지식 체크리스트 - 성이란? 사춘기란? 성적 존재란? 월경이란?
성역할 고정관념과 나다움	- <여자사전> <안녕, 나의 사춘기> 보면서 새로웠던 것, 궁금했던 것 나누기 - 여자라서 남자라서 듣기 싫은 말 동영상 보기, 성별 고정관념 자가진단 활동지 - 여자라서 듣기 싫었던 말, 내가 경험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 이야기 나누기 - 나다움이란? 성적 권리 존중의 의미 이야기 나누기
사춘기 변화와 긍정적 이해	- 사춘기 성지식 스피드 퀴즈 - 사춘기 빙고게임 -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 강의와 실제 경험 나누기
다달라	- 교실 속 혐오, 폭력, 장난, 디지털성폭력, 차별 알아보기

17) 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www.ulsansay.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연구자가 운영하는 여성주의성교육연구소 ‘모두’에서 매년 진행하는 마을성평등아카데미 초등 5, 6학년 성평등 성교육과정으로 총 6회기 진행하며 양육자 강의도 1회기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을이야기, 학교이야기	- 마을에서, 교실에서, 집에서 불편한 경험 나누기 - 교실, 집, 친구, 가족관계에서 성별고정관념 바꾸기 위한 실천 사례 나누기
다달라 연애이야기_ '동의' 훈련	- 청소년을 위한 동의 동영상 보기 - 성적 의사결정 능력 자기점검 활동지 -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스킨십 활동지 - 사례 토론
디지털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 과제> 내가 존경하는 여성 인물, 여성 위인 찾아오기 - 디지털 성범죄 특징, 유형,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동영상

□ 사례 3. 부천 산어린이학교 5, 6학년 포괄적 성교육

산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은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어떻게 밝고 건강하게 나눌 수 있을까?’에서부터 출발했다. 아이들은 성적 호기심을 서로 자극하기도 성에 대한 정보로 아는 척 하기도 한다. 성에 대한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시선,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성의 관점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목표였다.

○ 성적 수다, 성적 소통

교사: ‘성’하면 뭐가 떠올라?

아이들: 섹스, 임신, 콘돔, 동성애, 불룩한 가슴, 음경, 발기, 어정쩡한 표정, 신음소리...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웃고만 있기도 하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난감해 하기도 하고, 눈과 코를 살짝 찡그리기도 했다. 표정은 가지각색이지만 귀만은 쫓긋 열려있다. 대답들을 통해 아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관찰해 볼 수 있었고, 미디어 노출 정도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래 아이들끼리의 대화만으로는 정확한 성 지식,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세워지기는 버겁다. 성행위 또는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말과 행동이 오고 가고 성별 고정관념이 굳어지기 쉬우며, 이는 곧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친구들과 성과 관련하여 ()의 이야기를 나눠 본적이 있다!

아이1: 동성애는 성관계를 어떻게 할까?

아이2: 동성애자들을 더럽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아이3: 성관계는 옷을 다 벗고 하는 건가?

교사: 성 발달 과정 중 알고 싶거나 고민되는 것은 ()이다.

아이1: 생리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아이2: 생리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아이들이 놀릴 것 같다.

○ 월경, 월경용품 이야기

‘생리대는 파우치에 담아 숨기듯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나눈 후, 다양한 생리용품을 손으로 만져보고 관찰했다. 오버나이트, 대형, 중형, 소형 일회용 생리대 종류가 다양하다. 아이들은 “크기가 왜 다를까? 큰 것은 기저귀 같이 생겼다. 이것을 착용하면 불편할 것 같다. 생리양이 이렇게 많은가? 탐폰은 질 속에 어떻게 삽입하는 거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월경은 대소변처럼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날을 지정하여 하고 싶은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심지어 수면 중에도 생리혈이 흘러나온다. 자궁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생리이므로 상처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생리통은 사람마다 다르고 통증이 아주 강하기도 하다. 생리 중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 힘들어 수도 있다.’ 등의 정보를 통해 몸의 현상을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생리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겼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몸의 변화와 생리를 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해 공감도 했다. 생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엄마가 생리를 하고 있어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며 생리하는 엄마를 직접 인터뷰 하여 궁금증과 고민을 적어오기도 했다.

○ 성적 의사소통 이야기

10대 아이들에게 설레는 감정은 자주 찾아온다.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 커플 반지를 맞췄다며 비밀을 나누기도 한다. 사랑과 사귀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어 보았다. ‘설레는 사귀’이라 하면 보통 이성교제를 떠올릴 것이다. 사귀의 경험은 꼭 필요하다. 건강한 사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서로 존중의 필요성과 성적 의사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하다. 교제하고 있는 두 친구가 교실에 둘만 있게 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 “오~~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거나, 그저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서 나란히 걷고 있을 뿐인데 친구들이 야유를 보내서 불편했다는 경험이 나누기도 했다. 먼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추측해 보기로 했다.

교사: 청소년기 성적 행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나는 상대방과의 성적 행동을 어디까지 하고 싶나?

아이1: 저는 손잡고 껴안기까진 해보고 싶어요.

아이2: 저는 키스 할 때 느낌이 궁금해서 키스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아이3: 상대방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고 싶어요.

아이4: 전 성관계는 부담스러워요. 안하고 싶어요. 뽀뽀는 살짝 해보고 싶어요.

성적 행동을 금기시하기보다는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측해보고 내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성적 행동을 할 때 주체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현실적인 교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을 알아채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을 연습하기 위해 역할극을 해보았다.

－ 사례 :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초등학교 1학년 반 친구인 민재를 만났다. 그 친구와 웹툰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재미난 웹툰도 소개하고 떡볶이도 먹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취향을 존중해준다. 내가 교통카드 잃어버렸을 때도 집까지 함께 가 주었다. 이후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지난 번 민재 집에서 키스를 한 뒤 민재는 만날 때마다 키스를 하려고 한다.

역할을 정하고 나는 민재의 행동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성적 행동에 대해 민재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성에 대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거절하기 연습을 위해 대본을 써보았다.

나: 나는 키스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 있을 때 키스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불편해.

민재: 그럼, 나랑 키스하기 싫다는 거야?

나: 아니. 둘이서만 있을 때 하자.

민재: 알겠어. 나랑 키스하는 건 괜찮은 거야?

나: 응, 하지만 하기 전에 꼭 물어봐 줘. 둘만 있을 때 키스 하고 싶어. 지금은 싫어.

대본을 다시 읽어 보면서 사전 동의와 거절하기가 잘 표현되고 있는지 짚어보았다. 거절하기를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곤란함이다. 거절의 말을 못할 때도 많고 서툴게 표현해서 화나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적 행동에 있어서 거절은 더욱 더 꼭 필요하다. 상대방의 거절의 마음을 알아차려 주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강한 긍정이 아니라면 거절로 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침묵, 시선 회피, 동작 멈춤, 같은 신호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부정적인 신호로 먼저 고려해야 함은 꼭 필요한 배움이다. 미디어를 통해 성적 행동에 대한 간접 경험은 자주 하지만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성적 소통은 배우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왜곡된 경험만 쌓이게 될까 걱정스럽다.

○ 자위행위 이야기

성관계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청소년기에도 있다. 청소년도 부모도 성 욕구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성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스로 조절하거나

또는 혼자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다. 자위행위는 성욕구를 스스로 만족시키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크다. 자위행위에 대한 설명, 편견 걷어내기, 그리고 자위행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교사: 자위행위는 뭐야?

아이들: 세 살배기부터 80세 어른까지 자위행위는 가능한 것. 내 몸의 느낌을 알아가는 것, 생식기 주변을 어루만지는 것. 만족감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

교사: 자위행위 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정한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하지 않는다, 뒤처리하는 깔끔히 한다.

○ 임신과 피임 이야기

아이1: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싶은 경우 임신 예방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어렵지만 서로 좋아하면 성관계는 할 수 있잖아요.

교사: 그럼 이 질문에 답해 볼까? 내가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가족들과는 어떻게 의논할까?

아이2: 학교 다니는 것을 몇 년은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3: 친구들과 놀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임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 할 것 같아요.

아이3: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기와 살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무척 난처하고 어려운 과정일 것 같아요.

아이4: 아기 아빠도 학생이라면 아기 기저귀값, 분유값, 옷값이 없을 거예요.

아이5: 아기를 낳는 것도 겁나지만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임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해야 하며, 파트너와 임신 가능성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야 하며, 내 행동의 범위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대화가 이어졌다.

‘피임’에 대해 이야기로 넘어갔다. 피임법은 내 몸을 지키고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의와 함께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피임법인 콘돔과 경구 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콘돔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콘돔에 바람을 불어 넣어 놀잇감으로 변형하기도 한다. 하지만 콘돔의 쓰임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며 누구나 성적 쾌락을 즐기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이야기 나누었다. 약국에서 산 콘돔의 포장을 뜯고 안의 내용물을 관찰했다.

아이1: 왜 미끌미끌하죠?

아이2: 왜 이렇게 길어요?

아이3: 남자 생식기에 콘돔을 끼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발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왔다. 콘돔을 펼쳐 보면서 발기된 음경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피임법을 설명한 뒤 나만의 피임법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모둠 활동을 하였다.

아이1: 내가 선택한 피임법은 콘돔이다. 사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아이2: 내가 선택한 피임법은 경구 피임약이다. 콘돔에 구멍이 날까 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약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것 같다.

성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과 내 생애를 연결하고 관계 맺기를 찾아가기’. 성평등 수업을 통해 ‘성에 대해 말하기’ ‘성 수다’로 아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 표현을 시작했다. 성을 다루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미처 돌보지 못한 나에게 ‘나는 어디에 있고, 내 감정은 무엇인가?’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나는 지금 어떠하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고 잠깐 머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표 3-3] 부천산어린이학교 초등 5, 6학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 계획안

회기 주제(차시)	구체적 내용
청소년과 성(1-2)	- 몸의 2차 성징과 월경, 몽정 - 월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 월경용품 관찰 - 몽정과 발기를 하게 되는 과학적 이유
사랑의 의미(3-4)	- 사랑이란/ 에로스와 프시케 이야기 - 사랑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엄마 아빠의 첫사랑 이야기
교제(5-6)	- 나의 이상형 - 사귄 때 약속 정하기 - 내가 원하는 교제는, 데이트 계획 세워보기 - 데이트 역할극 해보기 - 교제에 대한 나의 결정 정리하기
임신과 출산(7-8)	- 난자와 정자의 만남 - 임신과 출산 과정 알고 이해하기(몸의 변화, 태아의 변화) -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조건 알아가기 - 내가 18세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주제로 가족회의 해보기
피임의 종류와 선택(9-10)	- 피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다양한 피임법과 기구 알아가기(콘돔 사용법 동영상 보기, 콘돔, 경구피임약 관찰) - 피임에 대한 OX퀴즈 - 나만의 피임법 선택하기
성적 의사 결정과 의사소통(11-13)	-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말의 의미 추측하기 - 청소년기 성적 행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 성행동 허용 기준표를 기준으로 나의 성적행동 허용 기준 만들기 - 성적 의사 결정을 할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생각하고 판단하기
성에 대한 주장과 거절 방법(14-15)	- 성과 관련된 거절 상황 읽고 해결방법 스스로 찾아보기 - 역할극으로 의사표현 해보기 - 모둠활동으로 성과 관련된 상황 대본 만들기
성욕구와 조절(16-17)	- 청소년기의 성 욕구에 대해 이해하기 - 자위행위에 대한 이해 - 성욕구 조절하는 방법 찾아보기
성평등 신문 만들기(18-19)	- 성평등 수업 가운데 기억에 남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1 기사 쓰기
청소년성문화센터 탐방(20)	- 임신과 출산, 피임, 콘돔 사용법 실습

3. 정책 제언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의 기초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제2조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 및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 국공립연수기관과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36조에 명시되어 있다.¹⁹⁾

제2차(2018-202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진로 교육-교육 및 학부모 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영유아기 관련 내용은 교육 콘텐츠 개발만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일 정책적 방안이 부재한 현실이다. 2018년 교육부는 스쿨미투에 대한 대응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상 양성평등 관련 계기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관련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여기에도 만 3-5세 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가운데 서울시는 2017년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성평등·존중안전에 따른 ‘여성안심 특별시 3.0’ 시행을 발표, 생활 속에 성평등을 구현시키고자 학교, 일터, 일상으로 구분하여 영유아 대상 ‘조기 눈높이 성평등 교육’을 40인 미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만 5세반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교육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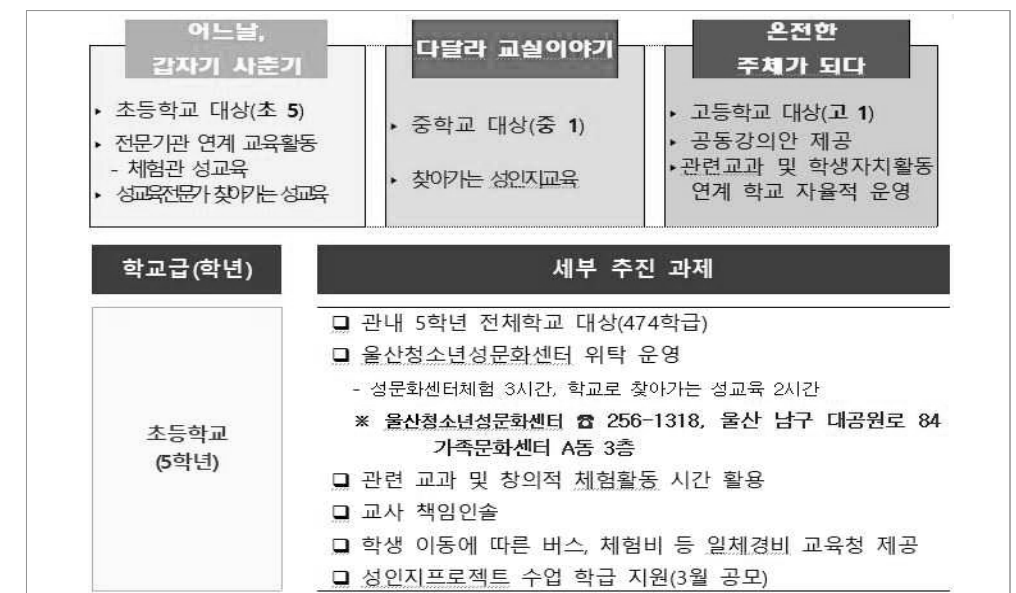
국가 수준의 성평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 소관 법령 제정과 현재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는 성평등교육 관련 부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평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정책의 전환, 즉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실시중인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2020년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을 위해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했다. 연간 15차시 성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 구성을 목적으로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성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고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영역 및 내용 체계를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보건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2021년부터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을 선언했다.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 배경으로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교육감 민원으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울산시교육감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즉, 인터넷 등 대중매체 및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으로 음란물에 의한 왜곡된 성지식의 무분별한 습득 등 아동·청소년기의 심각한 성 문제가 발생하고, 2019년 학생 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울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으로 성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으로 성평등 학교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성인지교육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²⁰⁾



[그림 3-1] 울산시교육청 성교육 집중학년 세부 추진 과제

19) 김송희,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성평등의식 실태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년.

20)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1년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계획’ 참조

울산시교육청은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초5, 중1, 고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초등 5학년의 경우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중1학년의 경우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고1학년의 경우 교육청이 제공하는 공동강의안을 활용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범교과 주제학습 및 관련교과의 연간 15차시 성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비 및 운영비 일체를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초등 5학년 성교육 집중학년의 경우 2021년 4월~12월 1일 체험장 운영을 오전(8:30~11:30분) 2학급, 오후(11:50~14:50) 2학급 총 4학급으로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으로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성적주체로서 자기 보호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 인권 의식 함양, 실질적인 성교육 실시로 올바른 성지식 및 성태도 형성 등을 기대효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사)부천여성의전화와 산어린이학교가 협력하여 1년간 포괄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인가 초중등 9년제 대안학교인 산어린이학교는 인가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성평등위원회 구성과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간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먼저 연초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인사로 (사)부천여성의전화 활동가(책임연구원)를 위촉했다.

이를 시작으로 포괄적 성교육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양육자 연수를 진행한 후 교사회 논의를 통해 초등 5~6학년, 중등학교 성평등교육을 20시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성평등 약속문을 만들었다.

[표 3-4] (사)부천여성의전화와 산어린이학교 성평등교육 협력 사례

일시	내용
2/16	포괄적 성교육 교사 연수1(책임연구원)
3/22	포괄적 성교육 교사 연수2(책임연구원)
5/21	포괄적 성교육 부모 연수(책임연구원)
3월-8월	5-6학년 대상 20회차 성교육 집중(산학교 교사)
9/3	5-6학년 성평등교육/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2시간)
9/24	산학교 성평등위원회 포괄적 성교육 연수(책임연구원)
11/5	3-4학년 성평등교육(2시간)

또한 혁신학교인 부명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으로 수업시수 20% 내 자율과정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1년 평화교육, 성교육, 진로교육, 생태교육을 주제로 잡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업하여 전학년 14시간씩 성평등 성교육을 진행했다. 학년군별로 3회 워크숍을 열어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성교육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전문강사 5회차, 담임교사 15회차 성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학부모연수를 5회 진행하고, 학부모 TFT를 운영하여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하는 성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나갔다.

이와 같은 부천지역 대안학교 사례, 혁신학교 사례를 토대로 하여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에서도 경기도민, 부천시민들의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포괄적 성교육 전면도입을 추진과제로 상정하여 초중고 공교육 안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권리 향상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권리를 인식하고 건강한 성의식과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는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형태로 부천시 내 4개 단체에 위탁해 3천만원 규모로 도민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중 일부에서 관내 초중고 신청을 받아 1차 시씩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일회성 예방교육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건강권, 복지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성평등 정책 혹은 성인지 향상 교육 등을 좀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평등한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추진안을 벤치마킹하여 적어도 초등과정 1개 학년 15차시, 중등과정 1개 학년 15차시 등 집중학년제처럼 우선적 시작한 후 교사 연수, 시범학교 운영, 연구용역 등을 병행하면서 점차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훈련, 토론, 기술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천시와 부천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관련한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성평등한 학교교육을 위한 학교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포괄적 성교육 연구/시범/선도학교 지정 운영, 예산 지원. 관내 혁신학교 중심으로 연구 시범 학교를 지정, 운영한다.

둘째, 관내 부천여성의전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등과 협력하여 초 5학년, 중 1학년 집중학년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부천시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천형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한다.

셋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부천 관내 유초중고 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주관하에 양육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여 포괄적 성교육 양육자 과정을 연구, 실행한다.

2021 시민참여 창의혁신 공론화

작은연구 희망플랜

성평등관점의 공교육 성교육 방안 안연구

유아·초등대상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15).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

김송희, 심자영(2019).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성평등의식 실태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양지영 김홍미리(2017).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한권의책.

김은희(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현미 외(2014). 젠더와 사회. 동녘

박은애(2021),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성’,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성’. 공동육아 140호.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2019). 국제성교육가이드 2018년 개정판.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1). ‘2021년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계획’.

정대련(2005).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유아 그림책 분석: 2000년 이후 출판된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

조현제(2021). 양육지 성인지 역량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현제(2021). 나다움어린이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다시 읽기. 공동육아 139호.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2021). 학교 성교육 다시 쓰기-아웃박스가 제안하는 새로운 성교육.

크리스티아 스피어스 브라운(2018).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창비.

<인터넷 사이트, 신문기사 등>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https://lib.seoul.go.kr/search/detail/CATCRZ000000941112>

오마이뉴스. 2020. 8. 31. “내 책이 외설적? 매우 종교적이거나 섹스에 거부감 있거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1072

사랑,
노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